

한반도 평화 오면 우리 모두가 승자.... 내가 대북 특사라는 각오로 각자 역할 해야

○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은 대 성공

저는 작년 6월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 2년 내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강연 방송을 통해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수상 및 재선 등을 위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지만 이제는 살기 위해서 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트럼프도 미국의 최대 위협인 북핵을 해결해야 본인이 산다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트럼프 지지율 45% 취임 이후 최고) 트럼프, 김정은이 임계점에 와 있고, 이 틈을 문재인대통령께서 파고들어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한 것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완전한 비핵화 연내 종전 선언’을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새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을 길잡이 삼아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도 성공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결정만 있는 나라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 모든 것을 손익 개념으로 접근하는 세일즈맨 트럼프, 이 두 정상회담의 만남 그 자체가 21세기 최고의 빅 이벤트였고 성과였습니다.(2000년 6.15 정상회담도 만남 자체가 성과)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도 최상입니다. 전체 4개 항의 합의문 중, 제1항, 새로운 북미관계는 외교 관계 수립을, 제2항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의미합니다, 제3항에 명시된 판문점 선언 확인과 완전한 비핵화는 문재인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1항, 2항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CVIG, 제3항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CVID를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이상 어떤 합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70년 된 북미 관계의 판이 바뀌었고 이제는 말 대 말의 국면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제 눈에는 CVID가 보이는데 CVID 문구와 로드맵이 없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북미정상회담은 과거 실무자 간 대화인 차관보급 회담과 달리 TOP-DOWN입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유예,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의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사로 활동한 2000년 6.15 정상회담 당시에도 저는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을 다시 방문해 남북국방장관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만간 폼페이어의 방북도 예상됩니다.

○ CVID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해 북미 간 행동으로 신뢰 쌓아야

폼페이오 2차 방북 때 미국은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인식하고 비핵화를 과정으로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 회담 당시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과학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2년 반 내 비핵화’를 언급한 것도 트럼프 임기 내에 가시적인 조치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비핵화는 트럼프의 결단,金正은의 실천,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운전 이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CVID는 최종 목표입니다. ‘한반도 평화 열차가 CVID라는 종착역으로 가는데 필요한 동력이 바로 CVIG’입니다.

북한은 수개월째 핵 미사일 발사를 유예해 몇 개월째 모라토리움에 들어갔고, 최근에는 풍계리 갭도 파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약속 등 핵 동결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이제 미국도 과거 중공과 월맹을 인정하고 지원해서 오늘의 중국과 베트남이 된 것처럼 북한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역시 비핵화의 담대한 길로 갈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를 위해서라도 김정은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과거처럼 쌍주머니를 차면 안 됩니다. 미국도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북한을 정상국가로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 북미 신뢰 구축에 우리 안전운전이 중요,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여기에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북미 신뢰 구축을 위해 미국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리운전도 우리 욕심을 앞세운 과속 운전도 안 됩니다.

이제 안전운전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 긴밀한 외교 공조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폼페이오의 3차 방북,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 상주 연락사무소 등 외교 관계 수립의 결실이 맺어 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문재인정부의 노력에 큰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김정은은 최근 석 달 사이에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하는 등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데뷔했습니다. 김정은도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우리 일부 보수 세력들이 변화된 환경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민심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보수 세력도 건설적이고 비판적 대안을 내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에 있음을 보수 세력도 직시해야 합니다.

○ 비핵화, 한반도 평화 오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될 수 있어

비핵화가 실천되고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첫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뀝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접경 지역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리고, 주가가 들썩인 것처럼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한반도 평화공동체가 되면 ‘경제의 혈압’이라고 하는 주가는 단숨에 3천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금융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둘째, 한반도에 투자자들이 몰려옵니다. 비핵화가 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북미 수교에 이어 북일 수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저와 약속 했던 대일청구권 자금 (당시 100억불, 현재 200억불 예상)은 물론 중국, 러시아도 비슷한 경제협력과 투자가 예상됩니다. 또 세계 각국의 은행도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것입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북한의 희토류, 광물자원은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최소 3,000조원(미국 블룸버그 6천조원, 영국 이코노미스트 1경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희토류 및 우라늄, 아연, 동, 석회석 등 광물 자원과 우리의 기술이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 지하 자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연 1조 7천억(2015년 광업광산물통계연보)이 됩니다.

넷째, ‘DJ의 꿈, 철의 실크로드’가 되어 우리는 대륙과 해양의 중심이 됩니다. DJ는 2000년 6.15 귀국보고회에서 경의선 연결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철도가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런던, 파리로 가고, 일본도 해저터널로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푸틴은 두 나라 철도청장까지 회동하며 큰 관심을 보였고, 일본 신간센 관계자들도 문화부장관이던 저를 찾아와 한일 해저 터널로 ‘철의 실크로드’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해 이러한 사업에 두 정상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람과 상품을 싣고 목포, 부산을 출발하는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와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면 대륙은 우리의 안방이 되고, EU(유럽 연합)는 이웃이 됩니다.

값싸고 풍부한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의 천연가스, 원유, 노동력 등이 한국, 일본의 기술 및 자본과 결합되면 동북아는 유럽연합(EU)에 버금가는 경제권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륙경제, 해양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핵화가 되면 민족이 상생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농어업 기술 및 비료를 북한에 전수, 전달해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남아도는 쌀, 감귤, 농산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한반도 미세먼지, 중국어선 불법 조업, 한강 북부 지역 홍수 문제, 백두산 화산 문제 등도 남북이 공동으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모두 대북 특사라는 자세로 한반도 평화 위해 각자 역할 해야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금처럼 남한 단독경제로 갈 경우, 2050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0.5%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2009년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평화경제공동체가 될 경우 2050년 세계 2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정부 통일준비위원회도 통일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7만불,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비핵화를 이룩해 한반도 평화, 번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북한에서 일하고 북한에서 사업도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는 실패하면 정권교체하면 됩니다. 경제도 실패하면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핵화에 실패하면 전쟁이 나고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남북, 북미간의 실천에 따지 않고 고춧가루를 뿌리면 비핵화는 파탄 납니다. 그 손해도 전쟁도 고스란히 우리 몫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오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모두가 승자가 됩니다. ‘내가 대북 특사’라는 자세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를 위한 노력을 성원하고 응원합시다. 저도 6.15 특사로서 DJ 이념을 지키고 남북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